- 임기가 만료된 박경환 부회장 후임으로 윤준섭(58세) 전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을 신임 상근부회장에 선임

신임 상근부회장에 윤준섭씨 취임

임기만료 박경환 부회장 후임

지난 3월로 임기가 만료된 박경환 부회장 후임으로 윤준섭(58세) 전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이 신임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윤준섭 신임 상근부회장은 충남 논산출신으로 건교부 녹지공원과장과 도시관리과장, 도시건축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윤준섭 신임 상근부회장

서울건축사회, 고건 前 총리 초청 조찬강연회 개최

오는 5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세훈)는 오는 5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 초청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 고건 전 총리는 이번 조찬강연에서 IMF 경제관리체제로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축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서울건축사회는 지난해부터 한완상 전 부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 오명 전 건설교통부장관, 송자 전 명지대 총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문의: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건축사예비시험, 5월 10일 홍익대에서 치뤄

오전 10시부터 140분간
건축계획 등 3개과목 시험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가 발표됐다. 올해 예비시험은 오는 5월 10일(일) 홍익대에서 치뤄지며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연속해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3개 과목으로 모두 객관식 선택형 문제들이 출제된다. 시험장소인 홍익대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하차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시험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에 마감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8,222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지 게시판란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장소 공고」 참조)

건축사법 개정 추진

법인 건축사사무소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수행,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앞으로 건축사사무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실설계나 감리소홀로 발생된 소비자의 피해는 건축사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건축사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건축사관리 업무는 민간단체인 우리협회가 전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4일 우리협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건축사법개정안은 건축설계용역업의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설계용역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개정내용중에는 지금까지 전문감리업체만 할 수 있었던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업무를 건축사 3인, 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한 법인건축사사무소에도 허용해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므로써 설계용역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도 자가업무용 사옥에 한해 설계할 수 있도

록 허용해 건설업체의 설계 외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건축시험제도를 개선해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예비시험을 면제해 주므로써 1, 2급 자격 소지자간의 형평성을 꾀하는 한편 최소합격인원 사전예고제의 도입으로 적정수의 건축사를 배출토록 할 방침이다.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 정 방 안	현 행	개 정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 전문화 유도	-건축사사무소의 법인설립 요건 미비 • 대표자는 건축사여야 함 • 인적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법인사무소나 개인사무소간 업무내용에 차이 없음	-인적구성 등 법인설립 요건을 정함 • 현행과 같음 • 건축사 3명+기술사 1명 이상 등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에 인센티브 부여 •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 수행 등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없음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 하자보수 보증 업무 수행 • 설계이행 보증 업무 수행 • 회원에게 대출업무 수행
건축사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건축사사무소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휴 · 폐업 신고 처리는 시 · 도지사 업무임	-건축사 등록 등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건축사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행정처분내용이 과도하고 획일적 •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기술사법에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건축사법에선 과태료 100만원 또는 업무정지 1년 • '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시 위반동기,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영업정지 8월	-유사자격제도와 형평성을 갖도록 하고, 유연성 부여 •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토록 함 • '시정지시제도'를 도입하여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전 시정기회 부여
일정경력 2급기사에게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기사 2급자격자는 실무경력이 있어도 건축사예비시험이 면제 안됨 *기사 1급 소지자는 7년 경력이 있으면 예비시험 면제	-기사 2급자격자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건축사시험에 최소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도입	-건축사시험에서 60점 이상 받아야만 건축사 자격취득	-최소 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도입 • 60점이상 득점자가 미달시 동 인원까지 합격 처리

건축법 개정 추진

용도변경 규제완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8일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대상도 대폭 축소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건축행정 기반마련을 위한 건축관련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한 건축법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중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건물용도군의 축소조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대형건축물의 시 · 도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도시설계수립지역은 건축사의 확인으로 건축허가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도시설계제도 활성화 ▶법령내용중 기술적 · 전문적 내용분리 ▶건축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도로사선 등 건물높이제한 규정의 합리화 ▶소규모대지 활용방안 강구 등으로 이 가운데는 행정처리 절차는 물론 건축기준이 복잡해 그동안 민원발생의 주요인이 되어온 각종 규제사항들에 대한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다.

설계 · 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제한 철폐 추진

공정위, 관련법령개정 추진과 함께 PQ제 폐지방안도 검토키로

지난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 공사설계 및 감리용역의 경우 사전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상위 몇 개 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도록 돼 있는 PQ제도가 시장경쟁원리상 고도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격업체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우선 현행 설계 및 감리용역 PQ대상이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치 않고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를 과도하게 제한, 담합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설계 및 감리용역이 1단계에서 PQ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의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 대부분이 1단계에서의 PQ점수(70%)와 2단계에서 제시된 입찰가격(30%)만으로 낙찰자를 결정, 결국 중복심사로 인한 행정적 낭비요인이 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입찰자격수 제한을 폐지하는 안과 PQ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의견수렴후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중으로 관계법령을 고쳐 반영할 예정이다.

현상설계공모지침 개선 추진

공공건축사업 설계용역업체
선정과정상의 낭비 최소화

현상설계공모지침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지난 4월 19일 조달청은 공공건축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생기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행 설계공모방식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상설계공모방식의 개선을 위해 일선 설계업체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돼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에따라 공공건축 설계용역사업에 참가신청을 내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 용역 한건당 많게는 수억원의 설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또 설계업체의 평가항목 가점기준도 개선해 우수설계용역업체, ISO 9000인증 취득업체에 대한 가산점수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설계관련 가점기준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용역금액도 10억원이하의 용역심사인 경우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디자인학회, '98춘계학술세미나 개최

주제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실내디자인 정보구축과 대응'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시부터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실내디자인 정보구축과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포전문대 김국선교수와 동주여자전문대 김재식 교수, (주)ISM 하안수 대표가 참가해 '정보화사회에서의 실내디자인 정보 활용 방안', '실내디자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 체계화', '하이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실내디자인의 다양한 표현기법'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터/사/랑 5월 답사여행 참가자 모집

서산 개심사 등 전국 유명사찰
답사프로그램 마련

답사여행의 길잡이를 표방해 온 터/사/랑(대표 전숙희)에서는 5월 문화답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최측은 5월 한달동안 ▶서울문화유산 바로알기(2)-창덕궁 · 비원 · 창경궁 · 종묘(5월 5일) ▶보림사와 우리 차밭을 찾아서(5월 9일~10일) ▶아름다운 절집 개심사와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5월 17일) ▶오대산 문수사상과 정선 아라리(5월 23일~24일) 등 일정별로 모두 4회의 답사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참가희망자는 자신의 답사목적이나 시간계획에 맞게 답사코스를 정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건축답사에는 역사탐방연구회의 염상균, 이세웅씨가 강사로 동행해 전통문화와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문의 : 터/사/랑 02-725-1284

〈일정별 답사프로그램〉

- 5월 5일 / 서울문화유산 바로알기(2)
  - 답사지: 창덕궁, 비원, 창경궁, 종묘
  - 강 사: 염상균
  - 참가비: 1만2천원 (학생 1만원)

- 5월 9일~10일 / 보림사와 우리 차밭을 찾아서
  - 답사지: 장흥보림사, 정응민 묘소, 보성차밭, 장광마을
  - 강 사: 이세웅
  - 참가비: 5만원

- 5월 17일 / 아름다운 절집 개심사와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
  - 답사지: 개심사, 해미읍성, 보원사터, 서산 마애삼존불
  - 강 사: 염상균
  - 참가비: 3만5천원

- 5월 23~24일 / 오대산 문수사상과 정선 아라리
  - 답사지: 상원사, 월정사, 정선아우라지, 청령포(단종 유배지), 장릉, 사자산 법흥사
  - 강 사: 염상균
  - 참가비: 5만원

서귀포시, 「'98 칠십리 건축작품」 공모

지역정서 및 문화특성을 상징 건축물 선정, 시상

서귀포시는 지역정서와 문화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기 위해 '98칠십리 건축작품을 공모한다.
기간은 5월 20일까지로 서귀포시에 건축돼 사용중인 건축물 가운데 지역특성을 잘 살려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거나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자격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로 소정양식의 응모원서와 패널, 작품사진, 축소도면(B4규격 각 3부)을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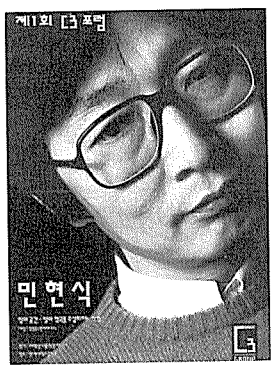
건축학회 98년도 정기총회 개최

총회전 춘계학술발표회도 열어

대한건축학회(회장 이정덕) 9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5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오전 춘계학술박표회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됐다.
특히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이해성(전 한양대 총장)박사가 '전문지식의 변천'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으며 율곡관과 팔달관 두 곳에서 분과별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건축가 민현식 초청강연회

C3그룹 주최, '땅의 공간-땅의 형국을 추상화하는 작업'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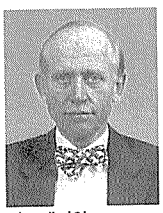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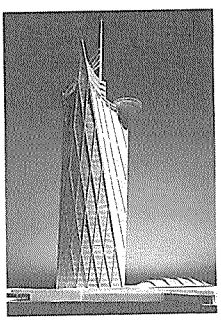


월간 KA를 축으로한 C3그룹에서는 지난 4월 15일 연세대 공학관에서 건축가 민현식씨를 초청해 '땅의 공간- 땅의 형국을 추상화하는 작업'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伊건축가 만프레디 니콜레티 내한

방한중 강연회와 건축전시회 열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대형건축물 설계분야에서 큰 역량을 보여온 만프레디 니콜레티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의 주선으로 지난 4월 1일 내한한 만프레디 니콜레티는 방한기간중 지난 4월 7일 서울대 박물관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진데 이어 서울대 박물관에서 4월 14일까지 건축전시회도 개최했다. 지난 1990년 그리스 정부가 주최한 아테네 '신아크로폴리스 박물관' 현상설계에 당선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그는 현재 사피엔차대학에서 건축디자인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아테네 '신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의 '뮤즈 프로젝트', '베니스 트론케토섬 주차터미날', '볼로냐 신중앙역사', '프랑스 자연박물관' 등이 있다. 한편 이번에 서울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만프레디의 독창적인 건축세계를 담은 1백여점의 패널들이 전시됐다.



만프레디와 그의 작품 「Calabria의 타워」

건축학회 정보센터 가동

인터넷주소는 'www. aik. or. kr'

대한건축학회 정보센터가 지난 4월 21일부터 가동됐다. 건축학회의 정보센터 인터넷주소는 'www. aik. or. kr'이며 접속자는 학회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뿐만 아니라 학회회원에 대한 정보검색과 각대학 건축관련학과에 대한 주소록과 논문집, 학회지 등을 본문검색할 수도 있다.

건축학회 대전 · 충남지부장에 목원대 김정동 교수

임기내에 '지역 건축가이드북' 발간, '학술상' 제정 의지 밝혀

김정동(목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지난 4

월 4일 대전산업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축학회 대전 · 충남지부 정기총회에서 새 지회장에 선출됐다.

김정동 신임 지회장은 앞으로 대전 정부청사 이전과 더불어 이 지역 건축분야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임기내에 '대전 · 충남지역 건축 가이드 북' 발간과 '학술상'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일본을 걷는다'란 저서를 펴냈던 김교수는 현재 목원대에서 산업정보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다.

IAI(건축 · 건설 표준협력체) 한국지부 창립

초대회장에 대우엔지니어링 남정현 대표이사

지난 4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는 AEC관련 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 건설 표준협력체인 IAI(Industry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한국지부 창립총회가 열렸다. IAI 한국지부 창립은 그동안 AEC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정하는데 있어 한국 고유의 건설모델과 프로세스를 반영할 수 있어야만 글로벌화된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부결성을 위해 벌여왔던 활발한 준비작업의 결실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IAI 한국지부가 창립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AEC분야의 표준화 기준을 공유하고 해당분야의 정보를 제한없이 이용 ·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IAI는 지난 94년에 최초로 구성돼, 97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8개지부 30여개 국가, 55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디자인, 건설, 운영, 유지 등 건물의 생명주기동안 상호 정보교환과 가격, 품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정보표준)를 공동으로 지정, 여러 소프트웨어의 상호호환성을 극대화하므로 AEC산업체를 통합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우엔지니어링 남정현 대표이사가 초대회장에, 현대건설 박상문 부장과 성균관대 이승복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선출에 앞서 경희대 김인한 교수가 'IAI/IFC Overview 및 해외 기술동향'이란 주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의 IFC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서울대학교 홍성목 교수 창립축사와 홍익대 김억교수의 창립경과 발표가 있었다.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개원

오는 5월 29일 서울교사에서 개원식 개최

지난해 12월 전문대학원으로 인가된 경기대 건축대학원이 오는 5월 29일 오후 3시 서울교사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원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건축계와 문화계,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해 국내최초로 설립된 건축전문대학원의 탄생을 다함께 축하한다.

특히 이날 개원식을 전후해서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고 새출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시작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이문영 아태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회를 개최하며, 또 교내 민주광장에선 김운선 무용단과 사물놀이패 '굿태궁', 피아니스트 신수정씨의 축하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02-390-5245~6)

도로종합기술연구원 현상설계 당선작 발표

종현건축+코아건축 안, 에이텍건축 안 등 2개안 당선

한국도로공사가 21세기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최첨단 연구기관의 설립을 위해 실시한 도로종합기술연구원 현상설계에서 에이텍건축 안 등 2개 안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도로연수군과 도로기술대학원군 등 2개 군으로 구분해 시행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는 총 19개 작품이 응모해, 이중 (주)에이텍건축(김상길)안이 도로연구소군 당선작에, (주)종현건축(최종철)과 (주)코아건축(전병직) 공동안이 도로기술대학원군 당선작에 각각 뽑혔다. 또 도로연구소군 우수작은 이오영임건축(김성렬)안이, 가작은 (주)무영건축(안길원)안이 차지하였으며 도로기술대학원군에선 (주)무영건축(안길원)안이 우수작에, (주)희림건축(이영희)안이 가작에 각각 선정됐다.

한편 이번 현상설계경기에는 심우갑(서울대 교수), 박영기(연세대 교수), 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옥(건교부 건축과장) 등 각계 전문가와 도로공사측 임원 등 총 11인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할 도로종합기술연구원은 대지면적 총 19,200㎡에 지상 4층 규모의 도로기술대학원을 비롯해 도로연구소, 관리후생동, 교육생 숙소, 체육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로기술대학원 조감도(코아건축 안)

건축역사학회 5월 월례발표회

주제는 '부산의 건축'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오는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부산광역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부산의 건축'을 주제로한 이번 월례발표회에서는 첫째날인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부경대 김기환 교수와 동명정보대 조승욱 교수가 각각 '부산건축의 시대사적 구분', '문맥과 건축-도시건축 읽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5월 17일엔 오전 9시부터 한국예술종합대학 김봉렬 교수의 안내로 복천 고분박물관과 기장학교에 대한 건축답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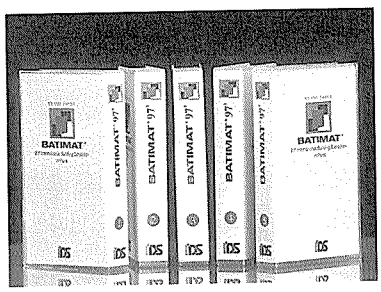
문의: 홍원건축사사무소 홍재동 소장 (051-469-1157)

BATIMAT '97 건축박람회 영상자료집 출시

해외 건축자재 신상품 및 신소재 정보 수록

지난해 11월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돼 연인원 7만여명이 관람할 정도로 화제가 됐었던 BATIMAT '97 세계건축자재박람회 영상자료집이 출시됐다. 국제전시회 영상자료 전문업체인 IDS사가 제작한 이 영상자료집은 40분용 비디오테입 5개로 제작돼 있으며 건축 · 건설자재 및 기계장비류, 내외벽 자재 및 소재, 바닥재 및 욕실용 자재, 천장 및 지붕재 등 각 건축자재분야별 신상품과 신소재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특히 이 영상자료집에는 각 분야별 추천기업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인터뷰와 설명이 수록돼 있어 시청자가 제품에 대한 특성과 장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IDS사는 소비자가가 15만원이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필요부분만 복사해 주거나 「BATIMAT '97」 관련 디렉토리 및 참가업체 소개자료도 준비배부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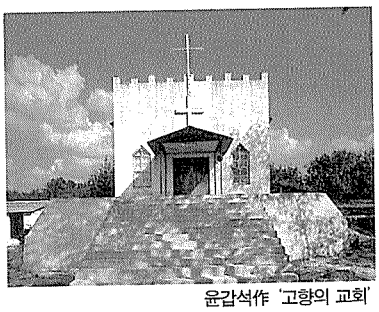
문의: IDS (02-3141-3530 / 336-6101)



건축사진작가 3인전- 「땅 · 집 · 공간」

김재경 · 윤갑석 · 황숙정 사진작품 전시

최근 10여년 동안의 우리 건축물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건축사진전이 열렸다.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다동 동아갤러리에서는 김재경 윤갑석 황숙정 등 3인 건축사진작가들이 모여 우리의 건축양식과 정서를 담은 자신들의 사진작품세계을 선보였다. 전시주제였던 '땅 · 집 · 공간'이 말해주듯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가옥과 절, 사원 등 현존하는 고건축물들을 주로 포커스에 담아온 김재경씨의 고건축 사진작품과 건축물 자체보다는 '터'를 강조해온 황숙정씨의 옛집 사진들, 그리고 윤갑석씨의 이국적이면서도 소박한 교회건물 사진작품들이 한 곳에 전시돼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기술적으로 각기 소재에 적합한 프린트를 사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과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한 것은 물론 흑백 밀착프린트에서 컬러사진에 이르기까지 사진의 발달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해 관심을 모았다.



윤갑석作 '고향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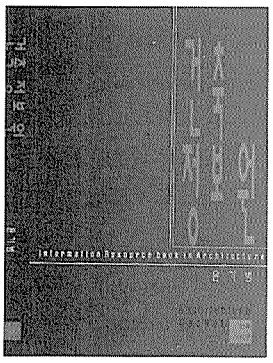
건축신간

건축정보원
도시건축의 공간창조
주거환경계획
건축만들기 Ⅱ 'ㄱ자집, ㅡ자집'

◇ 건축정보원

이 책은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분야의 주요 정보원들에 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즉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축분야별 관련기관과 정보의 출처를 정리한 참고도서이다. 이 책은 크게 생활정보, 계획정보, 기술정보편으로 구분돼 있으며 생활정보편에서는 부동산, 행정, 법률, 시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분야의 정보원들에 관한 자료가 수록돼 있다. 또 계획정보편에서는 계획 및 기획일반, 주택, 정책, 표준화, 단지 · 도시 · 국토개발, 조경, 교통, 역사, 정보화 및 CAD, 인테리어, 기술자료 등으로 구분돼 있고 기술정보편에서는 환경, 설비, 구조, 시공, 공법, 자재, 견적,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력관리, 장비, 감리, 관리 및 유지보수, 분야로 세분화돼 있다. 특히 이 책은 각 분야별로 자료실과 신문 · 잡지, 온라인 주소 등이 함께 기술돼 있어 정보수집의 효율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병著 / 건축캐드넷(02-538-3383) 펴냄 / 312쪽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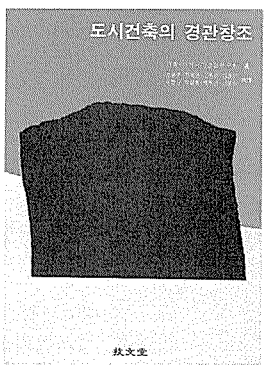
◇ 도시건축의 경관창조

「도시건축의 경관창조」는 일본의 건축 · 마치나미 경관 연구회가 1992년 작업한 『바람직한 건축 · 가로경관의 실상연구 보고 - 건축 · 가로경관의 창조』를 근거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1편에서는 건축 가로경관의 시점에 대한 논고를 정리하고 있으며, 제2편에는 건축 및 가로경관을 둘러싼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 메이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도시계획 및 건축의 규제, 유도방법, 도시디자인에 관한 운동전개의 개요, 선진적인 지자체에서의 대처, 특히 건축물의 도시에 대한 공헌의 실상 등을 가로경관의 형성과 공간 디자인 등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3편은 사례편으로 실제작품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조정 등을 통하여 도시공간에 대한 공헌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어판 서문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연구가 한국의 가로경관계획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당부하고 있다.

'건축물'이 건축물의 사용자가 규모에 따라 한정이 된다면, '가로공간'은 불특정 다수인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책은 그동안 일본에서 행해져 왔던 도시경관를 계획하고 가꾸는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서 한국의 도시경관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등 단위 지역개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의 시가지 경관에 대한 관심과 고찰의 시작을 알리고,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제도의 정비는 물론 시민을 비롯한 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노력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건축 · 마치나미 경관연구회著 / 조용준 외 7인譯 / 기문당(02-295-6171) 펴냄 / 19×26㎝ / 204쪽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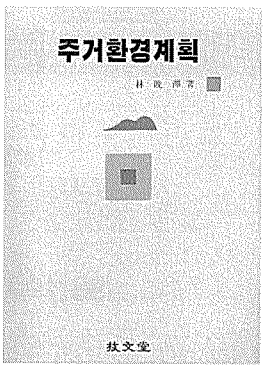
◇ 주거환경계획

「주거환경계획」은 주거건축물의 기획, 계획, 설계, 유지관리, 평가에 걸쳐 건축물 Life Dycle에 따라 중요한 환경요소를 계획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공기, 음환경, 빛환경, 수환경 뿐만 아니라 주거지로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적 환경 및 심리환경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의 구성에 따라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주거설계의 기본적인 요건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주거환경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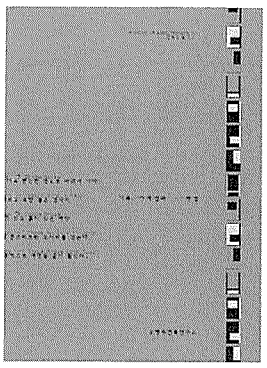
또한 미래 주거생활의 새로운 경향에서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 12가지 주택의 유형을 제시하고 계획의 주요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므로 건축 설계자가 앞으로 주거건축물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는 "편리성이 풍부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사회적인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사회발전이나 과거의 전통, 관습,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탐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총합화」는 거주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계획자측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만택著 / 기문당(02-295-6171) 펴냄 / 160쪽 / 1만2천원



◇ 건축만들기 Ⅱ 'ㄱ자집, ㅡ자집'

이 책은 지난해 발간된 「건축만들기 Ⅰ '현대의 토속건축'」에 이어 서울 평창동과 일산, 분당에 위치한 건축가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소장)씨의 주거 프로젝트들에 관한 건축얘기를 담고 있다. 전편 건축만들기 Ⅰ이 달동네로 불리우는 서민 주거지역을 사이트로 해 그 사이트의 형성구조와 주변건물들의 건축적 요소들에서 출발점을 찾았던데 반해 이 책에 소개된 주택들은 일산, 분당 등 자연발생적인 아닌 계획된 주거지역을 사이트로 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집'에 얽힌 작가의 건축적 사유를 엿보게 해준다. 건축가 조병수씨는 평창동 ㄱ자집과 ㅡ자 스튜디오주택, 일산 ㄱ자집, 분당 ㅡ자 중정주택 등 이 책에서 소개된 그의 단순 평면 · 형태의 집들이 대지와 주변 자연과 관계 맺을 때 던져주는 정서적 감흥, 그러한 지역성과 토착성을 건축을 통해 이어주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비평연구소(02-376-7775) 발행 / 68쪽 / 1만2천원